

### 대강절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OF ADVENT

주후 2022년 12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11 장 “귀중한 보배함을” (통일 11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8 번 구주 강림 (4)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이사야 (Isaiah) 7:10-16</b>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메시아 메들리”	찬양대
설 교 Sermon	<b>“그 이름, 임마누엘” (The Name, Immanuel)</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기 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했고,

주님의 화평을 가져오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거짓과 교만과 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화해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개역개정 사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NIV Isaiah 7:14)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8 (주일)	12/19 (월)	12/20 (화)	12/21 (수)	12/22 (목)	12/23 (금)	12/24 (토)
	대하21	대하22,23	대하24	대하25	대하26	대하27,28	대하29
본문	계9	계10	계11	계12	계13	계14	계15
	속5	속6	속7	속8	속9	속10	속11
	요8	요9	요10	요11	요12	요13	요14

#### 토/요/ 새/벽/기/도/회 성/탄/전/야/ 촛/불/예/배

토요 새벽기도회(12/24토 오전6:30)	“공활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사106:32-48)
성탄전야 촛불예배(12/24토 오후7:30)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2:7)

#### 지난 주일(12/11) 말씀 – 대강절 세번째 주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이사야 35:1-10)**

이사야 35장의 배경은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고, (적어도) 50년 이상 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이미)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버린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겁내는 자로 대표될 만큼, 바벨론의 오랜 억압과 포로생활로 인해, 연약해질대로, 연약해진 상태였고, 떨리는 무릎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잔뜩 겁에 질린 그런 비참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강하게 하고, 굳 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직접 찾아오사, 보복하시고, 갚아 주시며, 또한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1) 온전한 사람됨의 회복과 2) 온전한 자연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경계를 뛰어 넘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설/교/ 메/모